

손흥민, 발롱도르 최종후보 30인 명단에 이름 올랐다

설기현-박지성 이어 한국인 3번째...최초득표까지 도전

이강인도 '21세 이하 발롱도르' 코파 트로피 최종후보에 포함



한국 축구의 현재 아이콘 손흥민(토트넘)이 축구계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 최종후보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를 책임질 이강인(발렌시아)은 전 세계 21세 이하 선수들의 발롱도르 격인 코파 트로피 최종후보에 포함됐다.

프랑스의 축구 권위지 '프랑스 풋볼'은 22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2019년 발롱도르 최종후보 30인을 공개했다. 5명씩 짝을 이뤄 총 6번에 걸쳐 발표했는데 손흥민은 비질 반 다이크, 피르미누(이상 리버풀),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와 함

께 묶였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최종후보에 포함된 것은 2002년 설기현(당시 안더레흐트/벨기에), 2005년 박지성(당시 아인트호벤/네덜란드 및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 이어 손흥민이 3번째다.

그러나 당시 최종후보 인원은 지금과 같은 30명이 아닌 50명이었다. 설기현과 박지성 모두 최종 득표에 실패했기에 손흥민이 '최초 득표'라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를 비롯해 케빈 데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앙투안 그리즈만(바르셀로나), 에당 아자르(레알 마드리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라힘 스틸링(맨스

티), 킬리앙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현재 위상을 재입증했다.

한편 지난해 수상자인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는 제외됐다. 전년도 트로피의 주인공이 다음해 최종후보에서 탈락한 것은 모드리치가 최초다. 부상으로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브라질 축구의 에이스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도 빠졌다.

2019년 발롱도르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발렌시아의 이강인은 U-21 선수들의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최종후보 10인에 포함됐다. 코파 트로피는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초대 수상자는 프랑스의 음바페였다.

이강인은 지난 여름 폴란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면서 대회 MVP를 상징하는 골든볼을 수상,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시즌까지 출전 자체가 힘들었던 발렌시아에서도 조금씩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강인은 세계 정상급 수비수로 발돋움한 마티아스 더 리흐트(유벤투스), '제2의 호날두'라 불리는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

드리드) 등 쟁쟁한 이들과 함께 '미래 주역 10인'에 포함돼 가치를 빛냈다.

뉴스1

'4년만에 태극마크' 김광현 "빅리그 도전, 구단과 상의해야"

"PO 탈락 후 3일간 반성의 시간, 대표팀 책임 다할 것"

4년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다시 입은 에이스 김광현(SK)이 양현종(KIA)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여부에 대해서는 구단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광현은 21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진행된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비 국가대표 소집 훈련에 참가했다.

대표팀 훈련이 11일째 진행된 가운데 지난 17일 소속팀 SK 와이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김광현은 3일 휴식을 취한 뒤 팀 동료 박중훈, 하재훈, 최정과 함께 이날부터 대표팀에 합류했다.

훈련 뒤 김광현은 "4년만에 다시 대표팀에 합류해 감회가 새롭

다"며 "기회를 주시고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뽑아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표팀 에이스지만 소속팀 SK의 지난 플레이오프 탈락의 아쉬움이 짙은 상황이다. 김광현도 "3일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팀 성적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라면서도 "하지만 팀(대표팀)에 합류했으니 빨리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파이팅 하겠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한편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말, FA로 SK와 4년 계약을 맺은 김광현은 내년까지 계



약이 돼 있지만 구단의 허락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날 관련 질문에 김광현은 "구단과 상의해봐야 할 내용"이라며 "개인적으로 아직 어떤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류현진은 기교파...다저스, WS 나가려면 강속구 투수 필요"

LA 매체 주장

LA 지역 매체가 2020시즌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속구 투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 다저스 소식을 다루는 다저스웨이는 22일(한국시간)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워싱턴 내셔널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발 로테이션 상위에 위치한 선수들이다. 워싱턴과 휴스턴은 선발 로테이션이 두껍고 2명의 에이스가 원투 펀치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휴스턴은 개릿 콜과 저스틴 벨렌더, 워싱턴은 맥스 슈어저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있다"며 "다저스에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 류현진이

있었지만 그는 콜, 스트라스버그, 슈어저와 같이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기교파 투수"라고 설명했다.

다저스웨이는 "다저스에게 좋은 소식은 포스트시즌에서 워커 블러가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며 "클레이튼 커쇼가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서 리드를 날려 버리지 않았다면 볼러는 NLDS MVP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매체는 "다저스에게 나쁜 소식은 블러 뒤를 받쳐줄 투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커쇼는 최근 3번째 선발이 더 어울리는 모습이다. 홀리오 유리아스, 더스틴 메이 등이 2020년 성장해 선발진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저스웨이는 "만약 스트라스버그가 오프시즌에 2명의 에이스가 나오게 된다면 '롤은 다저스나 LA 에인절스가 좋은 계약을 제시하면 서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인 스트라스버그에게도 다저스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며 2명의 선수 중 한 명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임대성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성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